“오늘부터 여러분은 부처님 제자입니다”

개화산 약사사, 6월 19일 어린이 · 청소년 수계법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다섯 가지 계를 우리 약사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계를 맞이해 스스로 마음속에 작동해야 합니다.”

서울 개화산 약사사(주지 범해 · 조계종 포교원장)의 어린이 · 청소년 법회 학생들이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났다.

약사사는 6월 19일 경내 대웅전에서 어린이 · 청소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약사사 주지 범해 스님이 계사로, 어린이청소년법회 지도법사 윤성 스님이 인례를 맡아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40여 명의 어린이 · 청소년들은 부처님이 설하신 오계를 지키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불제자가 됐다.

장궤합장을 하고 스스로 참회한 40여 명의 어린이 · 청소년들은 계사 범해 스님에게 연비를 받았다. 연비의식은 향불로 시작했으나 아이들이 뜨거운 것에 놀라 당황해하자 삼보륜 도장으로 대체했다. 범해 스님은 일일이 도장을 찍으며 연비 의식을 진행했고, 윤성 스님은 수계자들에게 꽃잎을 뿌려주며 불제자로 거듭남을 축하했다.

범해 스님 계사로 40명 수계
“불제자로 거듭 나겠다” 다짐
매주 일요일마다 법회 봉행해
계층포교 원력이 이뤄낸 성과

범해 스님은 수계법문을 통해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해야 할 일들”이라며 “이제 우리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은 수계증을 아침저녁마다 들여다보며 ‘내가 오늘 할 일을 잘했는가, 부처님 제자로 잘 살았는가’ 하고 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계를 받았기에 여러분들은 불제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불제자가 된 여러분들을 정말 축하한다”고 전했다.


서울 강서구 개화산 약사사는 6월 19일 대웅전에서 어린이 청소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수계법회 직후 기념촬영 모습.


개화산 약사사 주지 범해 스님이 6월 19일 열린 어린이청소년 수계법회에서 연비 직후 울고 있는 김도진 군을 달래고 있다. 이날 법회를 통해 40여 명의 어린이 청소년 불자가 탄생했다.

개화산 약사사의 어린이 · 청소년 수계법회는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약사사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경내 삼성각 어린이 법당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또한 과학 · 영어 · 야외법회 등 각 주마다 새로운 테마를 정해서 법회를 운영하는 것도 강점이다.

수계를 받고 불제자가 된 어린이, 청소년들도 감회가 남달랐다. 향으로 연비를 받고 닭똥같은 눈물을 흘린 막내 김도진(7) 군은 “연비를 받을 때 어땠냐”는 질문에 “아팠어요”라고 짧게 답했지만 이내 “수계증을 받아 기분이 좋아요”라고 의젓함을 보였다.

송다정(화곡초 2학년) 양은 “오늘 ‘송하’ 라는 법명을 받았는데 주지 스님께서 수계증을 주시면서 설명해줘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됐다”며 “소나무처럼 여여하게 자리이타의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법명의 의미처럼 오계를 실천하며 불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연명의료 중단’ 이젠 노인복지관서도 등록

임종과정 환자가 의료 중단 결정
전국 568곳 전문상담 · 등록 가능

보건복지부가 6월 15일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국 30개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을 받지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를 의미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말한다. 향후 자신이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 미리 의사를 밝혀놓는 것으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 가능하다. 내용은 언제든 변경 및 철회 가능하다.

의향서 등록 기관은 기존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 민간단체, 공공기관을 비롯해 이번에 노인복지관까지 확대돼 전국에 모두 568곳으로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의향서 등록 건수가 전체 작성자의 77.9%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등록기관 확대는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향서를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복지관들은 상담사를 배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를 상담사로 두고 상담과 함께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도 기관에 직접 방문, 교육을 받고 업무 게시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복지관 상근 직원 2명을 상담사로 등록하고 7월부터 상담 및 접수에 나선다.

정관 스님은 “우리 복지관은 2007년부터 삶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남은 생을 알차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죽음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면서 “이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존엄한 죽음, 맞이하는 죽음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임은호 기자





지난4월 입적한 지정 스님의 유지에 따라 동국대에 장학기금이 전달됐다. 사진 왼쪽부터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이대원성 부산 연꽃모임 회장, 지정 스님 증손상좌 진석 스님.

어느 노비구니 스님의 아름다운 회향

4월 입적한 지정 스님, 동국대에 장학기금 전달

이대원성 회장 전달해

평생을 수행정진하며 모은 보시금 중 일부를 “동국대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회향하고 입적한 비구니 스님이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故 지정 스님. 스님은 덕숭총림 수덕사 견성암을 중창하고 김해 토굴에서 수행정진하다가 지난 4월 입적했다.

지정 스님의 증손상좌 진석 스님과 이대원성 부산 연꽃모임 회장은 6월 21일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을 만나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동국대에 전달된 장학기금은 지정 스님이 생전 조카로부터 받은 용채들을 모은 것이다. 지정 스님과 40년 동안 인연을 맺어온 이대원성 회장은 “입적 2개월 전 제게 연락해 주변을 정리할 뜻을 보이셨고, 동국대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하셨다”며 “불교 공부를 많이 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스님이 되고 싶다면서 내생에 동국대에서 공부하겠다고 서원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지정 스님의 유지와 서원을 따르기 위해 장학기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평생 수행정진하신 지정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 불교 인재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지하철 포교 게시판, ‘리뉴얼’ 합니다

지하철 풍경소리, 게시판 교체 불사 시작

지하철 역사 내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던 지하철 풍경소리가 포교게시판 교체 불사에 나선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 목종, 이하 지하철 풍경소리)는 6월 20일 불교환경연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하철 포교게시판 교체 불사 계획을 발표했다.

지하철 풍경소리는 향후 2년 동안 전국 지하철과 철도 승강장에 설치한 포교게시판을 전면 교체하는 불사를 진행한다. 새로운 게시판은 기존보다 확대된 450cm×760cm 크기로, 디자인은 기존 짧은 경구와 그림의 형태를 유지키로 했다. 그림은 정병례 새김아티스트와 박준수 동양화가가 후원했다.

게시판 교체는 부산 등 노후가 심각한 지하철 역사를 우선으로 이뤄지며, 서울 · 인천 · 광주 등 전국 780개 역 2547개 게시판이 대상이다. 교체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풍경소리 대표 목종 스님은 “지난 20년간 운영된 포교게시판은 포교위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내용물을 교체하며 직접 관리해 운영돼 왔다”면서 “하지만 게시판이 너무 노후되고 오염돼 전부 교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목종 스님은 게시판 교체 불사에 대중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스님은 “포교게시판 1구좌 후원금을 5만 원으로 정했다. 게시판 안에 후원자 명의를 부착해 그 공덕을 기릴 것”이라며 “후원자가 원하는 지하철 역사에 게시판을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은석초 전교생, 우크라이나 난민에 고사리손 나눔

6월 22일, 아름다운동행에
십시일반 모연금 160만 원

“전쟁으로 인해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웃나라로 피난을 다니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계종립 은석초등학교(교장 양형진) 학생들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고사리손으로 모은 모연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한다.



은석초 학생들은 6월 22일 교내에서 전달식을 갖고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에 16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모연금은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4월 초부터 일주일간 전교생 673명이 마음을 모아 십시일반한 것 중 일부다.

학생들을 대표해 모연금을 전달한 최아인 전교어린이회장은 “뉴스에서 난민들 사이에 우리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전쟁을 피해 다른 나라로 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면서 “하루빨리 평화가 도래해 세계 모든 곳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